

남구, “효천역~최북단 도라산역’ 통일열차 달린다”

내달 21일 한차례 운영...참가자 300명 모집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염원을 실은 남구 통일열차를 타고 비무장지대 투어 등 함께해요.”

오는 10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효천역에서 출발해 최북단에 위치한 도라산역까지 통일열차가 한차례 운행한다.

남구는 20일 “한반도 분단 현실을 실감하는 평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 남구 효천

역에서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까지 여행하는 통일열차를 운행한다”며 “통일 열차에 탑승할 승객 3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일열차 신청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남북 교류를 비롯해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신청서는 통일열차 참가자 모집 사이트(<https://namgu.vnsoft.co.kr>)에서 오는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선착순 300명 모집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참가비는 교통비와 관람료, 중식 및 석식 도시락을 포함해 1인당 8만 원이다.

통일열차에 탑승하는 주민들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6시 30분 효천역 광장에 집결해 출발식 행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통일열차에 몸을 싣게 된다.

열차는 오전 7시 효천역을 출발해 5시간 30분 가량을 달려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에 도착하며, 탑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북녘 땅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도라산 전망대 및 비무장지대 견학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통일열차 내에서는 도라산역 도착 전까지 통일 인문학 및 문화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통일열차 중간 칸 즈음에는 SNS 인증용 포토존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규진 기자

서구, 근무여건 개선 위한 혁신 추진

유연근무제·집중근무시간제·가족 사랑의 날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9월 중 민선8기 출범에 발맞춰 일과 삶의 균형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선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의 첫 번째로 직원들의 일과 삶 균형 도모 및 휴식있는 삶을 위해 기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

유연근무제는 10여년 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됐으나, 관행화된 야근문화,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구는 매월 유연근무 사용률에 대한 부서별 자체 목표(월 20%이상 실시, 연차별 상향)를 설정하고,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 1회 이상 참여를 유도해 제도를 확산 시킬 예정이다.

또한, 임산부, 어린 자녀를 둔 직원 등 유연근무에 적합한 직원을 선정해 참여를 권장한다.

두 번째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

한 ‘집중근무시간제’도 처음 시행한다. ‘집중근무시간제’는 업무집중도가 높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정해 이 시간 동안에는 회의, 행사, 보고, 타 부서 방문 등 업무 추진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키로 했다. 아울러, 제도 홍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제도 시행 공문을 발송하고 주기적으로 안내방송을 송출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중 수요일 하루는 정시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취지의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해 퇴근 무렵, 해당 내용을 송출해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라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구는 이외에도 직원 역량강화 교육, 공직자 힐링워크숍, 국내 문화탐방 등 각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광산구, 식품안전 강화 추진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식품 안전 환경 구축에 나선다.

광산구는 민선8기 시민이 공감하는 식품 안전 환경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 속 건강한 생활의 기반을 위한 안전한 식문화 정착 △사각지대 중점관리를 통한 믿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변화하는 먹거리에 대응한 안전한 식품환경 제공 및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 등 4대 정책 목표를 내걸었다.

광산구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식품위생 서비스, 새로운 지도문화 등을 위한 1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인 가구의 증가, 홀로 식사를 즐기는 ‘혼밥문화’에 발맞춰 혼자라도 누구나 편안히 식사할 수 있는 ‘혼밥 식당’ 지정 운영, 배달음식 수요 증가를 반영한 QR코드 활용 안전한 배달음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QR코드는 해당 업체의 조리 과정과 음식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담은 것으로 광산구가 제작·배부해 음식 배달 시 QR코드를 함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김정관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기업과 아동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별별동구, 사회공헌+돌봄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별별동구, 사회공헌+돌봄 프로젝트’ 협약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기업과 아동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별별동구, 사회공헌+돌봄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별별동구, 사회공헌+돌봄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아동 돌봄 시설과 매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돌봄 분야에 사

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시스템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은 시설 아동에게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제과·제빵 교육 ▲스피치 기초교육 ▲문화예술 치유연극 관람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업사이클링 D.I.Y 교육 ▲장구·사

진·조각아트 등 취미 발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참여기업의 강사비·재료비 등 직접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순수 사회공헌 서비스 제공과 유튜브, SNS 채널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기만 기자

북구, 복지 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자원과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해 나선다.

북구는 21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전남지방우정청 및 우체국공익재단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우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위기의심 가구에 복지정보 등이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이를 배달하는 집배원이 해당 가구의 위기 여부를 파악해 구청 복지부서에 전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복지 등기우편은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의 정보를 토대로 매월 300여 가구를 선정·발송하며, 사업의 효율을 위해 130여명의 집배원을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위촉운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기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는 상담 후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긴급복지, 공공 및 민간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드러나지 않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이중, 삼중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편의점 3사 및 동북수도사업소 등 생활밀착형 업무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IOT시스템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 발굴 주민 포상금 지급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관 기자

생명의 땅 강진 하늘과 바다와 강, 들이 만나는 강진 강진에서 나오는 귀한 농수산물을 드셔 보세요.

강진군과 초록민음이 추천하는 강진 건강10대 농식품

지주식김

쌀귀리

딸기

여주

녹차

토마토

전통장류

토하젓

황칠

연근

강진군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 01 신선**
▶ 청정지역 강진에서 직접 생산
- 02 신속**
▶ 농업인 직접 택배발송
- 03 신뢰**
▶ 강진군

믿고 먹을 수 있는 맛! 착한 가격!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 지원센터
<http://www.gangjin.center>